

제6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공모
당선작



고마운 우유

김민습

경남 함안 군북국민학교 1학년 1반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6회째인 90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8백94편이 응모해 세쌍회(회장 윤석중 아동문학가)에 심사를 의뢰, 최우수 1편, 우수 2편,佳作 5편, 입선 10편, 장려 30편등 총48편을 엄선하여 장학금과 상품을 전달했다. 이번호에는 입선6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나는 어릴적에 엄마젖이 모자라서 우유와 모유를 번갈아서 먹고 자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우유를 먹지 않으려고 우유꼭지를 내 뺀고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모유를 먹지 않고 우유만 먹고 자랐다고 한다.

그때부터 나는 우유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

만약 우유가 없고 모자라는 엄마젖만 먹고 자랐다면 지금처럼 튼튼한 어린이가 되었을지 궁금하다.

나는 우유를 무척 좋아한다.

어머니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를 사 주셨고 우유를 먹고 자란 나는 몸도 튼튼하고 키도 쑥쑥 커는것 같았다.

여덟살이 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를 마시면서 하루일을 시작한다.

우리집은 우유배달을 하는 아주머니가 날마다 우유를 배달해 주신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족은 우유를 즐겨 먹는 우유 가족이 되었다.

우유를 가공하는 공장에 가

본적은 없지만 젖소를 기르고 계시는 아저씨택에 놀러 가본 적은 있다.

젖소를 기르고 계시는 아저씨께서는 젖소에게 영양가 많은 먹이를 주고 세균이 우유에 침범할까봐 젖꼭지를 정성껏 소독하시고 젖짜는 작업을 하셨다.

아저씨께서는 나쁜 세균이 우리 몸속에 침범할까봐 젖꼭지와 우유통을 소독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우유를 마시는 우리들은 아저씨의 노고와 정성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셔야겠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등 많은 영양소가 포함된 우유를 많이 먹어 건강하고 씩씩한 대한의 기둥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한 마디가 있다.

수입된 가공우유 먹지말고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우유 많이 먹어 몸도 마음도 밝고 건강한 대한의 어린이가 되자.

입선

똥보장군

전 경 진

마산 합성국민학교 3학년 3반

아이들은 나를 보고 ‘똥보장군’이라고 자주 놀립니다. 나는 화를 내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그래 나는 똥보야’ 하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즐겁게 뛰놀니다.

옆집 아줌마들은 “무슨 비결이 있어요 집의 아들은 저렇게 건강한지?” 하시던

“비결은 무슨 비결, 가리지 않고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어요 또 우유를 너무 잘 먹습니다 집에서 한 봉지 아침마다 먹지만 학교에서는 두 봉지씩 받아 먹습니다. 자기 반에서도 두 봉지 먹는 학생은 아마 우리 경진이 뿐이 랍니다.”

엄마 말에 동네 아줌마들은 고개를 끄덕이 신다.

역시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 뿐더러 우유는 제일가는 영양가가든 건강 음식임을 알았는지 우유 배달 아줌마는 자주 우리 집 골목을 찾아 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아빠와 난 배드민턴을 잘 칩니다.

‘똥보장군’ 살 좀 빼라는 듯, 땀 흘린 내 얼굴을 보면

“그래 운동을 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 가서 진짜 장군이 되는 거야…….”

아빠 말씀에 나는 신이 나서 쟁충쟁충 산 노루 같이 산을 오릅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코 끝에서 맴돌때 산 짙고 오른 해님 얼굴 싱글벙글 단풍진 산위에서 아침 체조하고 약수물 킁킁 마시고 돌아오면 엄마는 식탁 위에 큰 빵과 계란 한 개에 우유 한잔 곁들어 줍니다.

하늘을 날을 듯한 기분으로 학교 체육시간 씨름장사가 된 나는 정말 우유 먹은 덕택인가 봅니다. 우리반은 전부 우유를 먹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뽕 먹고 알

먹는 것은 무얼까?” 수수께끼 내어 고개를 갸우뚱하면 그것은 우유 먹어서 건강 찾고, 또 농민들 도와주고, 만드는 공장 아저씨와 배달해 주는 차 모는 아저씨 모두모두 도와주니 모두가 이로운 일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조그마한 우리 집 화단가에 감나무의 감 몇개가 탐스럽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익은 단감 한 개를 우유 배달 아주머니께 준 엄마 치마폭에도 우유냄새가 자꾸 나는것 같습니다.

똥보장군 우유장군 나는 킁킁 우유를 먹습니다.

산따라 커가는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내 정다운 친구들 도와주며 신나게 뛰노는 산 노루 같습니다.

우유 많이 먹는 ‘똥보장군’ 통일의 노래 부르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들국화핀 들길을 산새같이 폴폴 날아 오릅니다.

입선

나는우유대장

김진규

군산 구암국민학교 1학년 5반

내 별명은 우유대장이랍니다.

내 별명은 선생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둘째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우유를 먹는답니다.

“애들아, 우유 먹을 시간이다.”

선생님의 소리에 우리는 차례차례 우유를 갖다 먹습니다. 나는 언제나 두개씩 가져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또 하나는 집에서 먹는답니다.

“우유는 조금씩 입에 넣고 밥 먹듯이 깨물어 먹어보세요 그러면 더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일학년이 처음 들어와서 선생님께서 우유 먹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뒤부터 선생님이 알려주신대로 먹었습니다. 정말 우유가 더 맛있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일등으로 먹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진규는 우유대장이구나”. 하시면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우리반 친구들은 모두 나를 “우유대장”이라 부릅니다. 나는 내 별명이 싫지 않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올때는 우유 먹는 것을 생각하면 신이 납니다.

지난 추석날에는 큰집과 외갓집이 있는 고창에 갔었습니다. 고창에는 넓은 들과 낮은 산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규야, 네 고향인 이곳에는 목장이 많단다. 너 우유대장이지?” 하시며 큰집 뒤에 있는 목장으로 날 데리고 갔

습니다. 그 곳에는 젖소가 12마리나 있었습니다. 젖통이 내 머리보다 더 큰 엄마 젖소가 있었습니다. 아저씨께서 젖짜는 기계를 엄마 젖소의 젖통에 갖다대니 흰 우유가 짹짹 빠져나왔습니다. 참 많이 나왔습니다.

나는 엄마 젖소에게 풀을 집어 주었습니다.

“이 풀 많이 먹고 우유 많이 만들어 내렴”

젖소는 내 소리를 알았다는 듯 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풀만 먹고도 흰 우유를 만드는 젖소가 참 기특하고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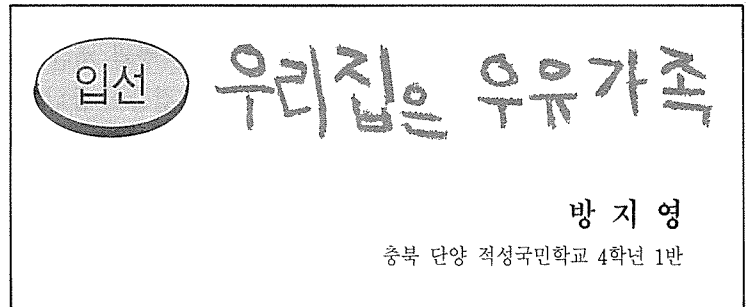
마웠습니다.

또 젖소를 기르시는 아저씨도 고마운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젖소와 우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역시 우유대장 이라서 아는게 많구나”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유대장답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유박사’가 되겠습니다. 우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우유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영아, 오늘 소풍 갔다 오는 길에 선생님 꼭 모시고 와야 한다. 그리고 반 친구들도 모두 데리고 오고.”

1년 가까이 저를 열심히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께 오늘 우리 집 젖소에서 짠 우유를 대접해 드리려고 며칠전부터 엄마께서 해 오신 말씀이다.

“엄마, 우유가 뭐 그리 좋은 거라구 그래요 다른 애들처럼 선물은 안 사주시구…….”

통명스럽게 내뱉으며 나는 다녀오겠다는 인사도 안 드리고 후다닥 집을 뛰쳐나왔다. 학교에 오는 동안 괜히, 자꾸 심술이나, 길 위에 있는 돌멩이를 뺨뺨 찼다.

옛날부터 대대로 우리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 금수산 신령님의 딸이 신비스럽게 누워 있다는 금수산 정상에 있는 절터로 향했다. 제천 시내 큰 학

교에서 10년동안 계시다가 올해 우리 학교로 오신 선생님께서는 소풍가시는 것이 우리보다도 더 좋은지 여느때와는 달리 연실 싱글벙글이셨다. 선생님의 웃는 얼굴을 보니 나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걷다 보니 어느새 저만큼 우리 집이 보였다. 아이들이 “선생님, 지영이네 집이 저기예요. 지영이네 집에는 젓소가 열마리도 넘어요 그래서 우유도 많이搾해요.” 하며 야단들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아, 참 그래, 지영이네가 젓소를 키운다고 했지? 이따 내려 올 적에 우리 젓소 구경 좀 시켜주지 않겠니?” 하시며 내 머리를 톡 치셨다. 난 아침에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 속으로 찝찝하였다.

올 가을 소풍이 가장 즐거웠다고 재잘거리며 내려 오다가 25명의 우리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갔다. 괜히 부끄럽고 쑥스러웠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어머니께서 우유를 준비하시는 동안 아버지를 따라 젓소 농장으로 나갔다. 젓소들이 신기하듯 두 눈을 반짝거리며 우리들을 자꾸 쳐다 보았다.

11마리의 젓소를 둘러보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젓소가 우리에게 주는 우유의 좋은 점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다.

우유는 칼슘군으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칼슘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 우리같이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뼈를 키우고 또 튼튼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라고 하셨다.

집으로 들어오니 어머니께서는 3개의 커다란 주전자에 가득 담은 우유를 컵에 가득 가득씩 따라 주셨다. 나처럼 우유를 싫어하거나, 비위가 약해 우유를 잘 못 먹던 아이들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인지, 단숨에 꿀꺽꿀꺽 들이마셨다. 선생님께서는 우유를 그냥 물마시듯 삼키지 말고 입속에

넣고 씹어서 침과 골고루 섞은 다음 먹으면 소화가 훨씬 더 잘 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지영이는 키가 작지만 이렇게 신선하고 질이 좋은 우유를 매일 먹을 수 있으니 머지않아 장대같이 크겠는걸.” 하시니 모두들 크게 웃었다.

웬일인지 나도 오늘 우유 맛이 정말 좋았다.

나는 매일 먹기 싫어 억지로 마시던 우유를 앞으로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배웅하면서 난 처음으로 우리 집 젓소가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입선

우리는 우유가족

김유정

강원 삼척 정라국민학교 4학년 1반

“엄마 우유 누가 다 먹었어요?”

“아빠 한잔 드시고, 할머니, 엄마도 조금 마셨다. 그리고 다 진이가 마셨단다.”

“아이 난 몰라 진이 빨리 우유 내봐.”

“누나가 늦게 일어 났으니가 못 먹었지.”

“아빠! 아빠! 저 우유좀

사 주세요 진이가 저 혼자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500미리 말고 1,000미리 시켜요.”

“그래 우유좀 사오렴, 아빠도 우유좀 먹고 젊어져 힘좀 내야겠다.”

“아빠 최고!”

“유정아, 넌 언제 철들래.”
엄마가 다그치셨다.

“이제 철들 거예요.”

“알았어 학교나 가거라.”

나는 우유를 2컵을 마시고 갔다. 난 몸이 조금 약하여서 아빠께서는 우유를 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한달도 빼먹지 않고 먹게 해 주셨다. 그러다 보니 동생, 나 식구들 모두 우유를 먹게 되었다.

나는 우리반 우유 대장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우유가 맛있었고 맛있다 하였고. 그래서 난

“맛없으면 나 줘.”

“그리고, 우유는 맛으로 먹는게 아니야 자기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니 난 맛있고 없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요즈음은 너도 나도 먼저 먹으려고 한다.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우유는 내가 오는지 알고 있다는듯이 냉장고에 있었다. 나는 진이가 알미웠다. 그래서 한통을 들락날락하면서 다 마셨다. 진이가 놀러 갔다 돌아왔다.

“어 우유가 없네.”

“응 내가 먹었어.”

“왜 누나 혼자 다 먹었어?”

“너가 늦게 온 탓이야.”

진이는 아무말도 못 했다.

아빠는 저녁에도 우유와 빵을 사오셨다. 우리들은 우유를 한번에 누가 더 많이 먹기 내기를 했다가 배가 터질 뻔 했다.

엄마는 “밥을 저렇게 열심히 먹지.” 하시며 꾸지람을 주셨

다. 아빠는 우리편을 드시며 “유정아, 진아, 물론 밥을 먹어야 되지만, 너희들과 우리 가족처럼 우유를 좋아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 하단다. 우유엔 여러가지 영양소가 들어 있어 밥을 대신할수도 있단다. 그렇다고 밥을 안먹어선 안되지 않겠니?”

“예”

내가 아빠에게 조르듯이 말했다.

“아빠 아빠 우리 식구는 우


유를 모두 좋아하니 건강한 가족, 우유 가족이네요.”

“그렇게 되나? 하하하.”

우리 식구는 우유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그 날은 우유를 먹어서 인지 활기가 넘쳤고,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우유야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식구를 위해 꼭 있어야오.”



입선

고마운 우유

박인영

성남 희망대국민학교 3학년 6반

나의 별명은 보드레 아이스크림 입니다.

그 별명은 우유를 잘 먹어서 살갓이 보들보들하다고 아빠가 뽀뽀를 하실 때마다 불러 주시는 별명입니다.

내가 아기일 땐 어머니의 젖을 한 방울도 먹지 못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직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언니는 어머니께서 키우시고 나는 외갓집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기일 때에 우유만 주면 ‘꿀꺽 꿀꺽’ 다 먹었다

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나는 무엇 이든지 다주면 잘 먹는다고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렸을 때의 별명은 오동통 너구리 였습니다.

우유는 어렸을 때도 잘 먹었지만 지금도 역시 잘먹는 음식 입니다.

지금은 싼 값으로 급식을 먹고 있지만 일요일이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따로 사먹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급식 돈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 하십

니다.

“빵은 먹지 않아도, 우유는 꼭 먹어야 한다. 우유는 영양가도 많고 무기질이 들어 있어서 몸에 아주 좋다.”

그리고 빵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도 좋으니 빵과 우유를 둘 다 먹거라.”

우유가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 주고 맛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우유를 안 드십니다.

나는 우유가 맛있기만 한데 할머니께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안 잡수시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다리와 이가 약하신가 봅니다. 매일 매일 다리가 아프시다고 말씀

하시면서도 우유를 못 잡수시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유 드시는 습관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언니도 우유를 참 잘 먹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쭉쭉 크게 해준 우유가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보드레 아이스크림아.”

하면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난,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하며 얼른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는 나를 무척 귀여워 하십니다. 그것이 다 우유 덕분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목욕탕에 갔는데 어른들이 우유를 몸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인

줄만 알았던 우유를 맛사지 하다니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우유를 맛사지 하면 피부가 참 고와 진단다.”

나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유로 맛사지 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좋아 하는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등에 우유가 들어 간것 일수록 더욱 맛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게끔 된 요즈음은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유를 많이 먹어서 고운 피부와 튼튼한 이와 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우유 안녕.

민간요법



숙취에서 벗어나려면

오이 1~2개를 물에 잘 씻은 다음껍질을 벗기지 않고 강판에 갈아준다. 강판에 갈은 오이를 베보자기에 감싸서 즙을 낸다.

이 오이즙을 컵에 반컵정도부어 마시면 꿀물보다더 도움이 된다.

발목을 삐었을 때

계란노른자 2개 정도를 풀어서 밀가루 약간을 섞어 배합하여 환부에 붙여준다. 이때 반드시 계란노른자만을 사용하고, 아침 기상시와 저녁 취침시에 하는 것이 좋다. 비단 발목을 삐었을 때만이 아니라 무릎관절에도 효과가 있다.